

중증장애인 상습 폭행 복지사 검거

남원시 “10여 년 간 보조금 지급 후 감사했지만 학대사실 몰랐다” 해명

전국 각지에서 위탁돼 생활하는 지적장애 1·2급 중증장애인들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이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부상을 입힌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조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 폭행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원장 이모(72)씨와 동료교사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시설의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씨는 시설 장애인이 밥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세워 머리를 찌고 또 다른 장애인이 탁자에 올라가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학대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서 시설

장애인들은 눈앞에서 학대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그저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해당 시설에서 상습적으로 학대가 이뤄져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2억여원의 보조금을 매년 해당 시설에 지급하면서 해마다 2차례씩 해당 시설을 감사했지만 보조금 업무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을 뿐 장애인들의 생활여건 점검 등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내 장애인시설에서 끔찍한 폭행이 이뤄져 왔음에도 관할

관·감독기관인 남원시는 학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은 남원시가 아닌 시설 관계자의 제보와 시민·사회단체 조사 및 경찰의 수사로 밝혀진 만큼 관할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폐쇄적인 장애인 시설의 특성 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행사실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지난해 시민·사회단체의 인권실태 조사에서 해당 시설의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안진수 기자



옥시 제품 마트에서 퇴출시키자 16일 전북환경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전주 롯데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함유 논란을 빚고 있는 '옥시' 제품을 수거하기 위해 카트에 담고 있다.

전주시, 시민원탁회의 우수정책팀 초청 간담회

전주시는 16일 제2회 시민원탁회의에서 우수정책팀으로 선정된 3팀(한옥마을, 청년일자리, 구도심활성화 분야) 17명을 시장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번 원탁회의에서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3팀을 시장실로 초청해 소관부서장들이 그동안 우수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설명했다.

첫 번째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한옥

마을 전용 셔틀버스 운영'은 이달 4일부터 한옥마을 전만 관광객을 기원하는 동시에 청년도시 전주를 의미하는 1000번 명품버스를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우수정책인 '청년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년상상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수정책인 '구

도심 빈집 수리지원 후 셰어링하우스 운영' 정책은 '해피빌리지 시범사업 운영지원'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 리모델링 후 청년셰어링하우스 1개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시민들은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귀담아 듣고 실제로 시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주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커졌다”며 “앞으로도 더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재 기자

마트 물품 훔친 60대 女 붙잡아

돈이 없어 마트에 들어가 음식 등 물건을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경 인화동 소재 한 마트에서 체리, 향정향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60·여)를 검거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인화동 다른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고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동사무소에서 월마다 40만원을 받아 생활을 하던 중 돈이 없어 배가 고파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주 기자

휴가중 절도미수 군인 검거

휴가를 나와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6일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절도행각을 벌이려던 미수(절도 미수)로 권모(22)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육군훈련소 30연대 조교로 15일 휴가를 나와 16일 오전 익산시 한 원목 담을 넘어 훔칠 물건을 찾다가 주인에게 발각돼 도주하다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여자 친구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가 원목의 담을 넘어 침입했으며 스마트폰 라이트 불빛만 켜고 집안을 돌아다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먹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도주한 점에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육군 헌병대로 이첩했다.

/박용주 기자

‘안전한 전주를 만들자’

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직원 비상소집 훈련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주시는 16일 오전 6시 법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맞춰 시 공무원들의 초기대응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발생 시 공무원의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역할과 임무 숙지 및 전 직원 재난대비 응소 태세를 확인했다.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6일 전 직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태풍발생에 따른 도상훈련과 민방위 비상대피훈련, 17일

다중밀집시설 대피훈련과 대피도상훈련, 20일 국민안전처에서 부여하는 불시메시지 대응훈련을 마지막으로 5일간의 훈련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승수 시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재난상황에 적절한 대응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항상 재난상황에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서 “전주시 모든 공직자들이 이번 재난 대응 안전훈련을 긴장감 속에서 진행하고 폭우와 장마 등 여름철 위기상황도 대응을 한 단계 격상해 재난 재해에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맞아 추모행사

19일 음악회 · 22일 문화제

노무현 재단 전북지역위원회에서는 오는 19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추모음악회에 이어 22일 고창 북분자테마파크 일원에서 시민참여 추모문화제를 각각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19일 예정된 추모음악회는 가수 김원중과 전북 지역의 뮤지션 ‘뮤즈그레인’, 퓨전국악 ‘소리에’, 밴드 ‘크립’ 등의 무대로 꾸며진다.

22일 고창 북분자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지는 추모문화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명 연설문 전시, 시화전, 풍등 날리기, 노랑개비 심기, 작은 음악회, 명사 토크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노 전대통령을 추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전북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이제 추모의 의미를 넘어 문화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뜻에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전주시 한옥형 건물번호판 ‘눈길’

공용건축물 17곳에 설치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한옥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특색을 살린 한옥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전통문화관 등 한옥 공용건축물 17곳에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한옥마을에 설치됐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표준형 건물번호판으로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한옥 건축물의 특색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시는 디자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목재 재질에 야광 도료를 사용해 야간에도 자체 빛을 내 누구나 쉽게 도로명주소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한옥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했다.

시는 이번 설치를 시작으로 한옥마을 내 700여체에 이르는 민간 한옥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설치토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지금까지 규격화된 건물번호판 설치로 개별 건축물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이번 설치를 계기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